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제25회 총회 개최공고

총회장 오운대
서기 김득삼

귀 교회의 평안과 전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 70주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의 주제말에 「교회에 혁신을」 「동포사회에 변혁을」
「세계에 소망을」 이 세가지 목표를 걸고 걸음을 시작
한지 2년째를 마지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리교회가 항상 문제
의식을 가지며 결단을 내려 복음적인 자세를 가추는배
있다고 확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오니
여러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협력을 중심으로 기대하면
서 공고 하는 바입니다

1966년9월 15일

기

• 임직원회

10월 13일 (월) 오전11시

장소 교오도교회당에서

• 예비총회

10월 14일 (화) 오전11시

장소 교오도교회당

구성 남 여 교역자 전원 장로 전원

각교회 대표 집사 1명(장로없는교회)

청년회 대표 5명 여전도회대표 5명

판서신도회 대표 5명

※ 이 총회는 여러분이 우리교회의 전진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며 그것을 토의 정리하는 예비
총회입니다

• 제25회 총회

일시 10월15일(수) 오전11시

10월16일(목) 오후5시

장소 교오도교회당

愛知한국학원장에 서재훈씨

名古屋교회 장로로 봉사하며

나고야시 소재 애지한국
학원에서는 지난 6월 26일
내빈 학생 12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학원장 취임식
이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그간 5개월5개월동안 학
원의 육성발전에 헌신하신
이준식 씨가 민단 아이찌
현 지방단장 취임으로 퇴
임케 되고 그 후임으로는
대한기독교 나고야 교회의
장로로 계신 서재훈씨가
지난 6월10일 애지한국학원
이사회결의를거쳐 선임 학
원장으로 임명 받았다

선임 서재훈원장은 다년
간 기독교 개척전도와 교
회 건립에 공적이 크고
특히 영신유치원 설립에
산파역을 담당한바 있었고
그밖에 재일 한국인 지역
사회를 위하여도 신용조합
애지장은 아이찌현 한국인
상공회 경우회 등 이사회
를 맡아있고 애지한국학원
은 중부일본 한국인 민족
교육의 전당으로 1958년에
정식제 모범학원으로 발족
한 이후 나고야 한국교육
문화센터의 노력과 학원이
사장 정환기씨를 중심으로
한 당지 교포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1965년에는 대지
356평 교사건평 268평의 현
대식 건물이 서게되었다

학원 현황은 본원아래 4
개 분원을 두고 교직은 10
명 학생총수 157명으로 국
어 국사 음악 요리등 국
민교과를 통하여 민족의
얼을 심어 넣고있다

또한 아이찌현내에는 4만
7천의 동포가 살고있고 일

平野교회 20주년

기념예배

지난 8월31일에 平野교회
가 창설20주년기념식이 있
었다

平野교회는 1949년 8월31
에 전도소로서 출발한것이
시초였다

처음 시작할때에는 다다
미방 두칸을 가지고 시작
하였다 교역자로서는 처음
부터 정인수목사님 였었고
신도는 그 근처에 살고있
던 20명 가까운 수였다

그간 꾸준한 발전을 보
아 현재는 목사외에 장로
2명 집사는 13명 청년회20
여전도회 31명 주일학교53
명의 제적이고 신도는 학
습세례 7명 세례 77명 구
도자 23명 도합 107명 이
다

이날 기념예배의 설교에
는 同志社대학 신학부에서
연구중인 백상근목사를 강

본계 소 중 고교 및 대
학에 재학중인 한국인 자
제가 약 3천명이나 되는만큼
앞으로 이 학생들에 대
한 민족주체성 확립이 긴
요하다

서재훈 신임학원장은 취
임사에서 성실한 마음과넓
은 사랑만 있으면 민족의
식의 확립은 가능하다고 역
설하고 앞으로 훌륭한 인
재배출로 재일한국인의 세
대교체와 체질개선에 이바
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로 하여 성령을 받으라
는 제목이 였다

NCC 심방 전도

집회에 참석

NCC 주최로 심방 전도강
습회가 天城山莊에서 8월19
일부터 21일까지 있었다

총회 산하교회부터는 북
부교회의 김말림 이애선 두
집사와 이영숙 여전도회총
무와 김원치 목사가 참가
했다

따뜻까지 내증인이 되
라는 포어말에서 전도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개인
전도의 방법과 영적인 뒷
바침에서 나가라는 은혜스
러운 설교가 있었다

신도간증에는 가정의 어
려운 생활속에서 시간을짚
것을 볼때에 눈물이 나더
라는 감격에 넘친 이야기
도 있었다

신도를
찾아서

4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새 노래로 주를 찬미 할 터

北部教会 康成安

이번호에는 판서지방 연
합 성가대의 지휘를 맡아
보고있는 강성안씨의 등장
이다

지금 大阪北部교회의 성
가대 지도를 하며 청년회
의 활약도 아주 눈에 뜨
인다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원인은 음악이야 어렸을때
부터 음악을 좋아 했기에
교회에 나가면 찬송가를
부를수 있으니까 나가 본
거지」

중학교 3학년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다 한국교회는
몰라 일본교회에 나갔다한
다 그 교회에 갔더니 외
국인 선교사가 그저 서루

른 일본말로「しんじなさい
しんじなさい」라고만 말하
기에「무얼 하나님이 있겠
나」하며 쭈뼛 반항만 하며
곧 교회에 나가는 것을그
만 두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때
누이동생이 한살인배 사망
하여 무척 슬펐다 그때
「천국이 정말 있다면 동
생은 천국에 갈것이다」라
고 생각이 들어 슬픈마음이
없어지고 매마침 전도집회
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전처럼 반항을 하고 의심
을 가질려 했으나 의심이
하나도 없고 설교자의 설
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
이었고 자기 마음에 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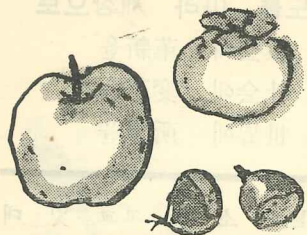
는것 같았다「아멘! 아
멘!」하며 맘속으로 외쳤
다 이날부터 그는 크리스
찬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집은 믿는
집이 아니기에 교회에 나
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다루었다 반대하면 할수록
신앙심이 두터워져 집과도
절연하여 전도사까지 되려
고 맘먹었다

大阪음악대학을 졸업한후
서울대학 음악대학원에 유
학갔다 교포들을 계몽하는
것과 민족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다

「장래 포부는 시편 134편
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에 있는것같
이 새노래를 가지고 주를
찬미하고 간증해 나가려한
다」 29세 지금 백두학
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있
다 아직 총각이다 (인)





천국민의 사회적 책임

마태 5:13~16

이 종 헌 목 사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주만
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
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
주 만물을 관리 지배하게
하실때 과학자로서는 물질
계를 관리 발전케 하시고
종교가에게는 정신계를 위
하여 발전 봉사할 임무를
주셨다 그런데 과학자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하여 현재
에 와서는 월세계 착륙하
는 역할을 하는때까지 진
보하였는데 정신계를 담당
한 종교가중 특히 우리기
독신자가 담당한 인류의심
령계를 동찰해 볼때 우리
가 맡은바 임무에 대하여
다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기독신자는 본문 5장 3-
12절에 기한바와 같이 심
령이 가난한자 애롱하는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등 이룰때면 이 세상에
서는 쓸개와 같고 만물의
찌꺼리같은 존재이다 (고전
4: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 그리스도신자를 가르치
너희는 세상에 소금 세상에
빛 이라고 하셨다 여
기에는 중대한 의미 세가
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내적 즉 질적품
성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
각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는
여러가지 의미에있어서 소
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인간의 생명을유
지하는데 없을수 없는 양
분입니다 중병자가 음식을
먹지못할때 잉계루나 포도
당주자가 아니면 생명을유
지하지 못함과 같이 이세
상에 기독신자 없이 그영
적 생명을 영구히 유지할

수 없읍니다

소금은 음식물에 맛있게
하는 조미료로서 인간생활
에 불가결함과 같이 이세
상 사회를 기독교가 얼마
나 뜻있게 했으며 또 일
 얼마나 기독교유사이래 어
떻게 인간사회를 뜻있게했
는가는 인간들이 잘알고있
는 바입니다

소금은 물질의 부패를방
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기독신자는 이세
상 국가사회의 양심이 되
어서 그 부패를 방지한것
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없
으며 앞으로도 이 역할이
우리 기독신자의 임무인것
을 재각성 하고 이 임무
에 충실해야 하겠읍니다

소금은 아무도 소금만을
먹을수 없는것 같이 기독
신자도 모든 사람들에게경
원함을 받고 있읍니다

이상에 모든성질은 다소
금이 그 맛을 가지고 있
는 까닭입니다 소금이 만
일 그 맛을 이룰같이 기
독신자가 세상의 부패와보
조를 마추고 사람들의 양
심을 쫓아낼 힘이 없으면
전연무용지물이 될뿐만 아
니라 만일 기독신자가 사
람들에게 실패함을 받는것을
두려워서 세상풍조와 타협
한다면 오히려 다른사람보
다 더욱 경시를 받게되어
밖에 버림을 받아 사람들
에게 밟히게 될것이다

▶둘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은 외적 사명의 교
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빛이시라 어두운것이 털
끝만치도 없으시다 (요일1:
5) 하나님은 빛이시라 모
든 사람에게 내리비치셨다
(요한1:9) 그리스도는 세

상의 빛이시라(요8:12) 고
로 기독신자의 외적 임무
의 성질의 합당한 것을가
르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
니다 왜 그러나 하면 빛
은 암흑에 정대립되어있는
것 같이 기독신자는 하나
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반
사해서 세상의 암흑과 대
립되어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빛이라면 빛에 합
당한 임무를 실행하지 않
으면 안되겠읍니다

빛은 두루 비치는 것이
아니고 결한 성품의 발함
이며 암흑을 쫓아 내는것
이니 사회의 암흑을 축출
하고 광명한 사회를 건설
해야하겠고 빛은 살균할수
도 있다 그와같이 사회의
죄악을 격멸해야 할것입니

다

▶산상의 마을과 등잔 위의 등불

이 말씀은 기독신자의임
장 즉 위치 또는 입각지
를 교시함이라고 생각합니
다 기독신자는 산꼭간에음
거하는 마을이 아니며 외
하에 덩혀있는 불이 아니
요 신자는 산상의 마을과
같이 등잔위의 등불과같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수있
는 위치 모든 사람들이바
라볼수있는 장소에서 빛을
내어 어두움을 쫓아야하고
명량한 사회 명량한 국가
를 건설하기를 노력하지않
고 말아래 등불과같이 음
선처에서 안주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는 결코 산중에숨어서 자
기 마음속에만 독자의 안
심함으로써 만족에 주해서
는 안될것이다 선교60주년
을 맞이하여 앞으로 70주
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따
라 세상으로 나가 동포사
회를 변혁을 위하여 세계
에 희망을 비치려고 할때

우리자신의 소금의맛은 완
전하며 빛된 자체의 빛은
광명하게 빛나고있는지 소
금과 빛 자신을 다시한번
반성해볼 필요는 있지않을
까 하는바이다

맛이 없어진 소금 밖으
로는 가리워 있지는 않으
나 자신을 반성하고 빛의
본령을 발휘하여 사람들앞
에 비쳐야 할것이다 이것
은 자기 명예를 구하려고
하는것이 아니요 모든 사
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운
여 하나님을 신봉하게 하
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것 우리의 목적이라고확
신 한다

기독신자는 신과 그리스
도께 받은 빛을 자기것만
으로하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자에게
는 그 빛을 다시 빼앗아
버릴것이다 소금이 맛을잃
고 빛이 비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타락을 어찌하겠
읍니까 소금이 다시 맛을
찾고 빛이 비쳐 사람들앞
에 비쳐야 하겠읍니다

(川西교회 목사)

여전도회 수양회

관 동 지 방

관동지방 여전도회 수양
회가 1969년8월5일부터 8일
까지 3박4일간 静岡県 中
伊豆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수 52명 •주제
강사 옥문석목사 YMCA
총무 •개회예배와 아침저
녁 기도회 인도 심은택전
도사 •아침 저녁기도와페
회예배 인도 이영숙전도사
부녀들의 신앙향상과 상
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분
주하던 가정생활을 잠시떠
나 대자연의 넓은 품에서
쉬면서 오목사님의 ≒절대자
와 인간≒ 구주예수≒ ≒전
도의 사명≒ ≒교회와 가정
생활≒ 그리고 ≒사랑의봉사≒
라는 제목들로 다섯차례의
강연을 통하여 진리의 말

씀을 함께 공부 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머무르는 동
안 매일 한번씩 관광패스
로 伊豆公園 일대를 끌고
루 다니며 관광 하였으며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아
름다운 화초들과 수족관의
고래들의 쇼까지 즐겨보며
또한 가는 곳 따라 그곳
의 명산물들을 맛나게 시
식도 하면서 참으로 감격
과 즐거움의 소리들을 하
나로 모아 높이 울리
돌아 왔읍니다 과연 하
님의 광대무변한 사랑의영
역을 찬치라도 넓게 바
보고 배우며 감격 하면서
다시 새 힘을 받는 보람
찬 여정이었읍니다

등산의 배배런 윤관병집

사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
의를 다 한 인물이 시종
여일하게 본 수양를 빛냈
으며 오랜 주님의일에 노
련하신 심전도사님의 무언
의 통설은 아울러 관동지
방의 자랑인듯 이에 합심
하여 이금용 회장님을 비
롯한 유명옥 김소재 노진
악 김숙도 황은녀씨들 여
러 운영 위원님들의 섬세
한 접대와 정성을다한 수
교가 또 이 수양회 뒤에
숨어 있었다 더욱이 여전
도회 전국연합회 회장되시
는 김향운 전생님께서 해
이 참석 하셔서 격려의말
씀과 더부러 한층 더 친
목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
셨읍니다

(이 영 숙 전도사기)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一부를

대 여행

★13日間、1970年2月21日~3月5日
★¥467,100-

기독신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 곳을
나도 걸어보는 여행 입니다 그의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관광
하는 데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 않읍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 F/TEL 06 (772) 5667
大阪東北営業所・守口市馬場町1730/TEL (991) 3756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講演第4

新しくされた教会のしるし

……… 於 60周年記念 教職者研修会 ………

特に、世界のあらゆる部分に於ける教会のために偉大な新しい宣教地を形成している都市の挑戦に面している他者のための教会の目標は何であろうか。余りにもしばしば我々は昨日の田舎の教会によって開拓された方法でもって今日の巨大な都市中心地で働こうとしている。(1) 神に立ち帰り、人に仕える。教会の宣教に於いて改心の位置はどこにあるだろう。革新のこの課題に於いて改心とは無関係になり、代りに社会活動をすべきではないか？これらを互に切り離してはならない。改心とはどういうことが再検討して見るべきである。新しい洞察は改心の全体の考えへ新しい方法ばかりでなし新しい内容も持たした。改心は教会に於ける革新と社会の変革のための真の力である。それはキリストの生と死と復活とに於いて、歴史の中の神の存在への応答であり、今日の世界に於ける聖霊の働きである。それは神への個人的な委託とこの世に於ける神の宣教への全き参与を含んでいる。

ビリー・グラハム集会の持つ伝統的19世紀福音主義は深く個人的に、この世から神へと避けることとしての改心を強調する。改心が自己中心主義に基いているこの世間的態度の拒否を含むことは真実である。しかし、聖書的観点両局面の動きを含んでいる。自分自身の利益から離れ隣人への利益とむかうこと(ピリピ2:3)それは利己追求のこの世間的関係が生ぬるさしい基本として受け入れられない世からのがれることであると同時に神の行動の場面と神の愛の対象としての世へと向うことである。社会変革は神の宣教の終着点である。これはキリスト教社会行動を含む。伝統的な観点とP・レフラーによる研究、《神への改心と人間への奉仕》で概説されたようなWCCの立場との相異はごく簡単に述べる事が出来る。古い観点は人間の宗教的かつ精神的部分である魂を持ったと見る。このように改心はあなたが神の愛の交わりの内にある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ため《あなた自身の魂を救う》ということへの伝道的アピールの応答である。箱船に入れ、さもなくばおぼれる。こ

れは本質的に利己主義である改心の新しい概念は、人は生きた魂であるという聖書の位置から始まる。それは人間の人格全体である。それは彼全体である。改心は神の僕達の交わりに入り神の宣教に参与するためこの世に於ける神の目的へあなた自身、あなたの全存在を献げる伝道的呼びかけへの応答である。このようにして、あなたは愛に於いて仲間へ、監督に於いて生全体へ関係することを学ぶのである。古い形の改心の見方は宗教的経験のある型と教会に仲間入りし、《クリスチャン》とラベルのはられたならわしの形式を採用するようなある個定した結果を仮定する。それはしばしば純粋に西洋の中

産階級的体面に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我々の改心の経験の大部分はイエスがマタイ福音書23章15節で非難しているように単に改宗を勧告していることになる。イエスの時代にあっては改宗することは人を彼等のいる世界からユダヤ教の世界へと引き出すことを意味した。キリスト者の宣教の業は多分に同じようなところがある摺それは教義やプログラム、或いはそろいの風習を広めたり、それを受け入れる人々を得ようとつとめる。

西洋の文化をそれがあたかもキリスト教であるがごとく、輸入することなど。宣教の課題は他者として福音が彼等にとり、どんなことを意味するかということの結果が

どうなるか前もって決定してしまわないで彼等のおかれていた状況で見ることを助長することである。我々の関心は他の宗教に対して一つの宗教をうちたてることではない。人間のコードを越えて神の国を建設することである。我々は神を要求する。我々は宗教的な要求を促進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我々はキリスト教を仏教や神道、それに世俗主義に対立するある宗教として、弁護するのでもない。我々はシャローム (SHALOM) をすべての人々に提供する全体としての人類への神の意志と目的の認識を強調するのである。我々は他の一連の原則に人を結びつけようとするもう一つの宗教的組織の代理人であるのか、それとも人間であるがままで受け入れキリストに於いて、人を解放して下さる神の愛の大使であるのか

(M・ランサム牧師)

……… ボンヘッファーの

神学的思考……… -8-

彼は教会論とか国家論に於ては神より委任を受けた代理者だという考えをし乍らも、現代的全体主義という新しい時代の国家理解に徹底す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故に、全体主義国家との対決に於て「暴君暗殺」という様なマキアベリ式の方法を認めたのみならず過度にも自らがそれに加担したの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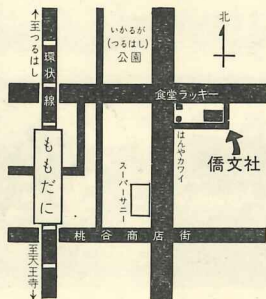
先に我々が見たボンヘッファーの「現実」思想即ち『キリストは悪魔の世界と和解し既にキリストは悪人のものであり、又善人のものでもある従って現実の一切のものはキリストの下で一つとなっている故に、既に永遠の闘争関係に置かれていない』という考えを見る時、ここに矛盾がないであろうか？我々は全体主義国家までも神の僕だと見ることが出来ない。それでも神の僕だと見る人々は、国家を社会的衝突、又は混沌から擁護する神の秩序であるとのみ反復して来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考えは、反基督教的な国家秩序と非基督教的な国家秩序と非基督教的な国家主義秩序との区別をばかしてしまうのみでなく、反基督教的全体主義国家が、一切を要求して来る時神の秩序まで、基督教信者として、反抗すべきであるのか

を曖昧にしてしまうのである。このような点から見ると、ボンヘッファーの国家論とか教会と国家の関係論は未だ未完成なのである。具体的に適用しようとする時、曖昧なのである。以上見て来たように一切の権威が神の僕又は代理であるという国家観を修正すべきであると言ったが、それならば、どの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ろうかこの問題は、一般の人間的国家観と神学的国家観の調和問題とも関連して来るのである。現実の人間的国家は完全に世俗的なものであり、その特徴と言えば、第1、力と闘争(生全体)第2、功利と物質(富)第3、機械技術と数学的法則(理性)等を基礎とした組織である。この3部分から成る要素は、この地上に於ては、無視することの出来ない鉄則なのである。このような力を持つ国家が、キリスト又は、神の法と関係なしに自律して、現実に強力に厳然と現存しているのを見る時従来の思想をそのまま適用することが出来ないと思われるのである。ルターは教会と国家との関係を2個の接触円として見たし、カルヴィンは相互に相1致する同円と見たし、バルトは2個の同心円と

見、ボンヘッファーはキリストを頂点とする3角形と見て両者を連結させたのである。彼等の共通点はどこまでも教会が中心となり、臨時の一次的なもの、国家なのである。終末には教会が基礎となって完成される御国を意味したのである。しかし、私はこれを逆に考えるのである。国家を外円、教会を内円と前提し、そこで臨時の一次的なものは、国家ではなく、むしろ、教会であると見るのである。国家という領域は、神が創造の時より、設置されたものである。しかし、墮落以後3つの鉄則によって、この世は被われてしま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国家に対して教会守り役役目、或いは塩の職分を委されたのである。しかし、歴史を見る時、教会がこの職務の当為性を知りつつも、実践できなかったのである。それは教会他者の為のみでなく自己までも生かすとい

う事実を忘れて、自己保存にのみ執着して来たからであるといえないであろうか？教会は、自らの職務を果たしつつ消滅しなければならない。消滅とは、この世に於ては完全にはあり得ないであろう完全な消滅という事ではなくその時代、その時代の要求に従って、存在形態は変化して行かねばならないことをいうのである。そのような消滅的働きをする事によって、国家が神の法を最高の権威と見なし、救いを受けて神の秩序となり、この地上の鉄則とか一切のこの世間的なものは、廃棄されるのではなく、そのままに、聖化され、使用されて「これが「そのまま神の国へと受け継がれて行くのである。これが、新しい人類新しい御国の実現なのである。従って、我々の努力は、このような、創造された時の回復に向かうべきであり、キリストを通して、これに参与することが救いなのである。ボンヘッファーの思想を1貫させるならば、このようになるものと私は考える。そして、全人類が歴史上、待ち望みつつ努力して来たものが、このようなものであると思うのである。又、1般史と救済史、1元論と2元論、楽観主義と悲観主義等の統一をこのようなはるか彼方の永遠の国家の中に見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つまり、プラメンやアリストテレスを始め、アウグスチヌスとアキノナス、ルターとカルヴィン、ヘーゲルとマルクス、バルトとボンヘッファーに到る歴史の潮流の合流点をこのような国家に於いて見るのである。神の法から脱している諸国家をその法の下に導いて、喪失した神の支配(可視的な意味)を現実のこの地上に於いて回復するようにと願ひ努力することこそが、たとえ人間的には絶望的であるにしても、我々の努力の目標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岐阜教会 金承俊講道師)

新しい社屋で営業を
しております

橋 文 社

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
電話 大阪 716-5046番



聖 書

1 ヤコブ、ヨハネの母も世の母親と同じく我が子の出世を望み、それに生がいを感じて息子を育てたし、信仰の道にも励んだのである。そこで主イエスが天国に行かれて自分の息子を最上の座である主イエスの右に座らして下さいと願ったのである。母の願いは息子たちの願いでもあった(マルコ 10:35)。彼らのこのことを知っていた他の弟子たちは憤慨したのである。その憤慨したことによって彼らも同様な名譽欲があったことを知ることが出来る(マルコ 10:41)。偉大な人生とはその人の生がいを感ずる人生をおくることである。しかしこのことは間違った考えで生がいを感ずる人である。それは主イエスが、このヤコブヨハネやその母に対しても彼らの間違いを指摘してあげた通りである。

2 主イエスは彼らの間違を直すのにこの世の支配者の偉大さと神の国での偉大さとは価値が違うことを教えられた(マルコ 10:42~43)。そして、彼らには私の飲む杯を飲むか(エレミヤ 49:12、イザヤ 53:11~12)と問い正したのである。キリストは十字架の死によって(第2テモテ 2:6)人に奉仕なさることを最も偉大だとされたのである。私たちも人を支配するのでなく人に仕える僕としての働きをすることであると教えられた偉大という語はすばらしい完成、熱情といった意味をもっている(マタイ 2:10、ロマ 9:12、黙 13:16)。人間誰もがこの世に生れて偉大なすばらしい人生をおくりたいと思

偉 大 な 人 生

マ タ イ 20:20~28

っているが、それをこの世での立身出世での偉大さではなく、主イエスの教えのように下積みになって人に仕える時に本当の偉大な人生をおくることが出来る(ヨハネ 13:14)。

3 ある牧師が偉大なる人物という題で中学生に講演をした。その時に教会の便所掃除をする一人のおばさんのお話をしてこの便所掃除をするおばさんが世界で一番偉大な人物であると語った。この話を

聞いた中学生40人程が日曜日にこの教会の便所を見に来た教会も小さく便所も板で造った貧弱なものであったが、さすがにきれいに掃除されてピカピカと輝っていたのでこのおばさんに会わせてくれと頼まれて礼拝の後に会ったけれども普通のおばさんであった彼らはそのおばさんの奉仕に感激してそれから教会に来たので20名教会が60名の教会になり、彼らが熱心に伝道し彼らも今は大きくなって教会の中心人物となっている。今では百名も集る教会となった。(西成教会 金元治牧師)

うに考えているのか? もう一度検討すべき時ではないかと痛感させられました。

関 西 地 方
中学生夏期学校

8月20日~22日 琵琶湖同志社唐崎ハウスにて開催。テキスト「キリスト教入門」を中心に宇宙開発の急速な高まりアポロ11号月着陸成功なので特別講演「天地創造」を田永福牧師より聞き「科学による月着陸で神様の住む場所がなくなった」との素朴な考え方などに改ためて、神の偉大さを知らしめた。今回、特に「グループづくり」なる試みをした。生徒の自主性とグループ関係を伸ばす為にやって見た。サングループ、12使信などの班名を自らづくり、班旗をも作り、夏期学校を意義あらしめようと果敢であった。楽しい2泊3日であった。中学生の感じやすい時期に、友と交わり、先生と交わり、教会の枝としての自分達を見つめる機会は、今後更に充実させていかねばならない。最後に関西女伝道会が炊事の一切のお世話をしてもらった。厚く感謝します。参加者教師6名生徒35名

第17回全教育修開か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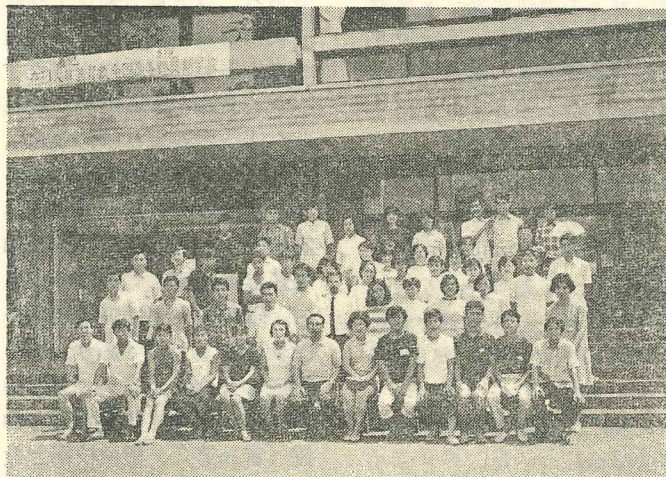
8 月 12~15日

在日韓基督教教育全協は、恒例の夏期全修を8月12~15日にわたって、御殿場=東山荘に於いて、130名以上の参加者で開催され、無事、全プログラムを消化し、閉会しました。ことしの修養会のスローガンは、全協の年間主題の「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と副題の「われわれの社会責任」でした。御殿場=東山荘は、裏山に登れば富士の全貌を見わたせる縁に囲まれた丘の中にありました。その林と芝生の中で幾つもの討論の輪や歌声の輪ができていきなり、全国の津々浦々から集まって来た教会青年が夜更けまで話し込んでいました。また昼間は佐古純一郎先生の講演があり、本当に《我々がどのようにして神の御旨に回答していくか》という信仰に溢れた言葉で、私達の生き方を説き明かし、深い感銘を与えてくれました。ことしの修養会の特徴は参加者の年齢がグッと若がり、ティーン・エージャの人が多く、全協内の世代の交代を感じさせられました。全体の参加者の話し合いの声を集めてみますと、我々

の教会が入管法反対斗争でも明らかにしたように、ますます、我々の僑胞社会に仕え日本人社会に対して責任ある態度で対処し、真に民族に対する責任を教会として果たして欲しいとの声が強かった。

全国高等部
夏 期 学 校

毎年恒例の「全国高等部夏期学校」は、去る8月12日(火)~15日(金)、静岡県御殿場の「東山荘」にてもたれました。

各 地 方 会
公 告

各 地 方 会 は 下 記 の 日 に 開 催 されます。

▶ 中 部 地 方 23 日 豊 橋 教 会
関 西 地 方 9 日 大 阪 教 会
東 部 地 方 23 日 折 尾 教 会
東 京 地 方 25 日 東 京 教 会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 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教会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 曾根崎町 2-21

電話 大阪 (06) 341-2162

